

## 베네수엘라 마두로 “여성들 아이 6명씩 낳아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사진)이 여성들을 향해 “국가 성장을 위해” 아이를 6명씩 낳으라고 촉구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이들 전 정부의 임신·출산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임신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섯 번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임신부를 격려한 후 다른 이들을 향해 “아이를 낳아라. 모든 여성은 6명씩 아이를 낳아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한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극단적인 출산 장려는 곧바로 야권의 비판을 받았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이민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 마누엘라 볼리바르는 트위터에 “병원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백신은 부족한 데다 영양부족 산모는 모유 수유도 힘들고 분유는 비싸서 살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선 수년째 극심한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의료 체계도 거의 마비됐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구는 물론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물과 전기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 최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 셋 중 하나인 930만 명이 기초 영양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 결핍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됐다.

최근 AFP통신은 베네수엘라 젊은 층이 모텔 갈 돈도, 콘돔이나 피임약 살 돈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제난이 청년들의 성생활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 중국, 코로나 발원지 떠넘기기 ... “미국일 수도”

중국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가세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코로나19의 근원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고 나선 셈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향후 자국에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원지 회피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별 매체가 어떤 근거도 없이 코로나19를 멋대로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하는 것은 중국에 전염병을 만든 나라라는 누명을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바이러스 발원지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여러 차례 코로나19는 세계적 현상이며 발원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일 바이러스 방역 연구가 진행 중인 군사의학연구소와 칭화대 의학원을



시찰한 자리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과 전파 경로를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시 주석은 “바이러스 근원 조사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전염됐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정확도와 검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중국 관영 매체들과 학계는 코로나19 발병이 중국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쏟아내 왔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옮겨올 독감으로 1만8,000명이 숨진 미국을 발원지일 수도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미국을 향해 독감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해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EU, ‘유럽 기후법안’ 공개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유럽 기후법안’을 공개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공개된 이 법안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에 합의한 EU 회원국들의 정치적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 정상들은 같은 달 이 같은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은 2030년 이후 EU 집행위에 회원국 정부에 탄소 배출 목표와 관련한 권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총량 ‘0’을 달성한다는 목표만 제시한 채 중간 단계의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오는 9월까지 재검토를 거쳐 새로운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운동가들은 보다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며 비판했고, EU 10여개 회원국도 우려를 표하며 2030년까지의 목표를 최대한 빨리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30년이나 2050년의 목표가 아닌 올해, 그리고 이후 매년, 매달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